

임플란트,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



한누리치과병원 이승열 원장

<약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병원 치주과 인턴, 레지던트
 청양대의무실, 서울지구병원 치과과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박사
 코네티컷주립대학병원 치주임플란트클리닉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임상외래교수
 코네티컷주립대학교 방문교수

임플란트 시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잃게 된 경우이다. 이때 치아상실의 원인 중 대부분은 구강위생상태가 나쁘고 환자 자신의 잇몸질환에 대한 인식과 칫솔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태가 부착되고 치석이 침착된 나쁜 구강위생상태하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행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보철물을 제작한다고 하여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시술전 조치로써 구강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환자 자신에 의한 구강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환자에게 충분한 동기를 유발시킨 다음 적절한 방법과 기구를 사용한 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임플란트 유지 관리가 왜 중요한가?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계획, 조심스런 외과적 처치, 기능에 적합하고 심미적인 보철물의 제작 등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검진의 방법과 체계확립을 통한 유지 관리 또한 임플란트 진료의 일부로써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치태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적인 면역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무치아 부위의 경우 지속적인 골흡수가 일어나며 잔존치아주위의 치주조직 또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임플란트 주위의 지지조직에서 치태축적과 세균에 의해 나타나는 병적인 소견은 자연치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치주치료나 치주염환자에 있어서의 유지 관리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상부구조의 재료인 타이타늄이 자연치에 비해 더 높은 치태친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연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재생능력이 임플란트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얼마나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하는가?

환자의 구강위생상태나 면역능력의 정도, 임플란트의 재료나 보철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선 보철물을 장착하면서부터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구강위생교육이 이

임플란트,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루어져야 하며 그 후 1-4주까지 보철물에 대한 체크와 구강위생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때 구강위생유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3개월이 지난 다음, 같은 방법의 검진이 필요하며 특별한 합병증 없이 진행될 경우 6개월 간격의 검진이면 충분하다. 물론 3년정도가 지난 후에는 12개월 간격으로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치태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구강위생이 불충분하거나 임플란트 주위에 병적인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또 당뇨병 등의 병력을 가진 위험군에 있어서는 3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검진이 계속 필요하다.

검진시 무엇을 평가하는가?

우선 치태부착정도를 평가한다. 치태의 축적을 막는 것이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환자의 상당한 동기유발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재교육 또한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치은의 염증성 변화와 부착상실을 관찰한다. 육안관찰과 탐침을 사용한 검사를 통하여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염증성 변화가능성을 평가하며 이는 또한 주위 골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수성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한 방사선 사진검사를 통하여 골소실의 형태와 양을 평가하며 치아동요도검사를 통하여 지지조직의 소실을 평가할 수 있고 위상차현미경이나 배양에 의한 세균검사를 통하여 염증이 나 병변의 진행과정이 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철물의 검사가 필요하다. 상부구조물의 파절이나 연결나사가 느슨해지는 현상, 교합면의 마모 등을 관찰하여 교합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한다.

어떻게 구강위생을 관리하나?

환자의 치태제거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가정관리 프로그램을 정하고 올바른 잇솔질방법과 치실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임플란트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이 매일 구강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잇솔질시에는 부드러운 칫솔, 치간칫솔, 치실, 구강세척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치태형성을 줄이기 위한 양치액의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자연치나 보철물의 착색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완벽한 구강위생관리는 어려우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플란트의 특수조건을 감안한 전문적인 위생관리의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일반적인 자연치에 사용하는 금속성 기구나 초음파 스케일러 등은 임플란트 구조물 표면을 긁거나 거칠게 만들어 치태침착이 더욱 촉진되게 하므로 적합하지 못하고 또한 연마효과가 큰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 대신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구나 티타늄으로 만든 스케일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의처 : 한누리치과 02-753-1925 